

해남군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 7월 14일 개장

8월 20일까지 38일간 운영...입수 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편의시설 확충·안전시설 등 정비...7월말 콘서트·공연 등

해남군은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을 다음 달 14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38일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이다. 군은 개장 전까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충, 물놀이 가능구역 지정, 안전 시설 설치 등 피서객 맛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해변콘서트와 문화공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송호해변 여름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땅끝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

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수가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 적당하다.

송호해수욕장 인근의 사구미 해수욕장은 올해 정식 개장하지 않고 주요 시설물 정비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9일 2023년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확정하고, 시설물 확충 등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도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송호해수욕장이 더욱더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구강이동 진료차량 운행 실시 의료취약지 주민 위한 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강 이동진료차량 운영을 실시해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구강이동진료차량 운영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의 일환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운영한다.

치과 진료 장비를 갖춘 차량이 마을을 방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과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구강이동진료차량은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방문해 ▲스케일링 ▲불소도포 ▲틀니살균세척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구강이동진료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제4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강진군은 지난 12일, 강진교육지원센터 2층에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및 모듬활동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발대식을 가진 제4기 강진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38명, 3개 모듬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표인 ▲여성활동역량 강화 ▲지역사회 안전증진 ▲양성평등 및 가족 친화를 주제로 강진을 여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군민참여단은 2년 임기의 알찬 활동을 위해,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백희정 대표에게 여성

친화도시의 이해 및 현황에 대해 강의를 듣고, 타시군의 군민참여단 사례를 공유해, 모듬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1모듬은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2모듬은 각종 축제장 내 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과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문제를, 3모듬은 전 군민들의 성평등 인식을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사이버 교육 이수 등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강의가 군민참여단원들에게 여성친화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어형 참가자 모집 6월 30일까지 신청, 전복·광어 등 양식 기술 전수 및 체험 진행

완도군은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하반기 프로그램(귀어형)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귀어·귀촌 실행 및 정착 단계에 있는 도시민 및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융복합 기술 전수를 통해 창업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기존의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다르게 전문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완도군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완도군 약산면의 어두리마을(약산면 약산로1020)에서 주낙 꾸미기, 새우·광어·전복 양식 기술 전수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자격으로는 만 18~55세 미만의 타지역 거주자 또는 전남으로 귀어·귀촌한 지 5년 이내인 자(귀어·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사전 수료)로 농수산물 판로 확대, 창업, 취업 등을 위해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서류심사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참가자에게는 거주 공간, 귀어·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체류 기간별 귀어·귀촌 교육 시간은 최대 90시간까지 인정한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완도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형으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어인의 집, 어울림 마을을 운영하고, 단기형으로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완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색있고 다양한 귀어·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친환경 무산김' 종자 주권 확보 총력

장흥군이 친환경 '무산김'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장흥군은 2008년부터 유·무기산을 쓰지 않는 전통 김 양식방법으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김 브랜드인 '장흥 무산김'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매년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해역 및 무산김 양식방법에 적합한 특화 김 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흥군은 친환경 무산김 양식방법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하고자 2009년 장흥 해역에서 무산김 양식에 적합한 종자를 선발해 7년의 육종 과정을 거쳐서 최종 3개 품종을 2016년 '품종 보호등록'출원을 신청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